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희역·주역·정역의 관계

역(易)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를 풀어내는 열쇠다. 우주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 복희팔괘(伏羲八卦), 문왕팔괘(文王八卦), 정역팔괘(正易八卦)이다. 이를 희역(羲易), 주역(周易), 정역(正易)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역(易)이라고 하면 주역(周易)을 말한다.

희역(羲易)은 원전회복(原天回復)의 천지공사(天地公事) 설계도(設計圖)이며 복희팔괘도(伏羲八卦圖)라 하고, 주역(周易)은 음양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변화 법도이며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라 하고, 정역(正易)은 미래의 우주 즉 회복된 천국의 완성도(完成圖)이며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라고 한다.

1. 희역(羲易)

원전회복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8괘(八卦)이며 희역(羲易)이라고 한다. 1년 375일에 대한 역(易)이다. 황하강에서 용마(龍馬)에 새겨진 그림을 태호(太皞) 복희씨(伏羲氏)가 보고 그렸다.

우주의 봄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는 복희팔괘는 일태극(一太極)을 중심으로 만물(萬物)이 창조, 생성되는 원리를 담고 있다.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四象)이 나오고 사상에서 다시 팔괘(八卦)가 생성된다. 태극이 삼변(三變)하여 팔괘로 벌어지면서 만물이 생성된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복희팔괘도를 보면 천지일월(天地日月)을 상징하는 건곤감리(乾坤坎離)가 우주의 중심축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바로 복희팔괘의 건곤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건곤(乾坤)인 부모(父母)가 정남쪽에 위치하고, 감리(坎離)인 중남중녀(中男中女)가 동서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과상(卦象)이다. 건곤(乾坤)이 우주의 바탕인 체(體)가 되고, 일월(日月)인 감리(坎離)가 쓰임인 용(用)이 된다.

양(陽) 방위인 동남(東南)의 건태리진(乾兌離震)은 양이 성(盛)하는 과정이요 음(陰) 방위인 서북(西北)의 손감간곤(巽坎艮坤)은 음이 자라 성(盛)하는 과정이다. 마주 보는 과와 효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음양이 조화되고 질서가 자리 잡혀 안정된 모습이다.

태극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태극팔괘도라고도 부른다. 복희 팔괘도는 생(生), 장(長), 성(成)의 3역(易) 중 생역(生易)에 해당한다.

복희 8괘도를 보면 맨 위(남방)이라고

복희팔괘도(아침, 봄, 생)	문왕팔괘도(점심, 여름, 장)	정역팔괘도(저녁, 가을, 성)
동쪽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	해가 정남에 떠올라 있는 모습	해가 서쪽으로 진 상태이며 양기가 내부에 수렴된 모습
생명을 낳는 때로 태극(一乾)이 주재함	상징하는 때로 중앙의 생수 5가 주재함	열매 맺는 때로 삼승(十巽)인 10건(十乾)이 주재함
태극팔괘도(太極八卦圖)	낙서팔괘도(洛書八卦圖)	허도팔괘도(河圖八卦圖)
원전회복 설계도(原天回復 設計圖)	변화 발전도(變化 發展圖)	완성도(完成圖)
8수도(八數圖)/1-8역(易)	9수도(九數圖)/1-9역(易)	10수도(十數圖)/5-10역(易)
상수(象數)의 총합이 36	상수(象數)의 총합이 45(상정수)	상수(象數)의 총합이 55(대정수)
5,500년 전 배달국 복희씨가 그림	3,000년 전 주(周)나라의 문왕이 그림	120년 전 조선의 김일부가 그림
생역도(生易圖), 원역도(原易圖)	윤역도(潤易圖), 교역도(交易圖)	성역도(成易圖), 정역도(正易圖); 변역도(變易圖)
마주 보는 과가 정음정양(正陰正陽)	감리를 제외하고 마주 보는 과가 난음난양(難陰難陽)	마주 보는 과와 숫자가 모두 정음정양(正陰正陽)
상하가 천지비(天地否)를 이룸	상하가 화수미제(水火未濟)를 이룸	상하가 지천(地天泰)를 이룸
선천팔괘도(先天八卦圖)	후천팔괘도(後天八卦圖)	정역팔괘도(河圖八卦圖)

함)에 일간천(一乾天)이 있으며, 다음 원전으로 일태극(一兌澤)이 있고, 삼리화(三離火), 사진뢰(四震雷), 오손풍(五巽風), 육갑수(六坎水), 칠간산(七艮山), 팔곤지(八坤地)가 있다. 맨 위의 남방에 있는 건(乾)과 맨 아래의 북방에 있는 곤(坤)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천지정위(天地定位)'라고 한다. 건은 천(天)이고, 곤은 지(地)라고 한다.

다음으로 태(兌)는 간(艮)과 상대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산택동기(山澤通氣)'라고 한다. 간은 산(山)이고, 태는택(澤)이라고 한다. 리(離)는 감(坎)과 상대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수화불상사(水火不相射): 물과 불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라고 한다. 리는 화(火)이고, 감은 수(水)라고 한다.

진(震)은 손(巽)과 상대를 하는데, 이를 가리켜 '뇌풍상박(雷風相搏): 번개와 바람은 서로 크게 부딪는다'라고 한다. 진은뢰(雷)이고, 손은 풍(風)이라고 한다. 건천(乾天)은 하늘이므로 맨 위에 있고 곤지(坤地)는 땅이므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간산(艮山)이 서북에 있는 것은 서북방이 본래 높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이고, 태택(兌澤)이 동남방에 있는 것은 동남방이 본래 지대가 낮아서 습기가 많으며 수상도시(水上都市)가 많기 때문이다.

이화(離火)가 동방에 있는 것은 붉은 태

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이고, 감수(坎水)가 서방에 있는 것은 찬 기운의 달이 서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진뢰(震雷)가 동북방에 있는 것은 동북방이 강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손풍(巽風)이 서남방에 있는 것은 서남방에서 바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희 8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복희팔괘에는 천지일월이 정위(定位)하고, 산택(山澤)이 교기(交氣)하여 만물을 생양(生養)하는 상(象)이 표현되어 있다. 상에는 건위천(乾爲天)이 있고 아래에는 곤위지(坤爲地)가 있으며 그것은 상하 천지가 정위(定位)한 상이요, 좌에 리위화(離爲火)가 있고 우에 감위수(坎爲水)가 있는 것은 일월(日月)이 출몰(出沒)하는 뜻이다.

상하좌우 사정위(四定位)에는 천문적인 현상이 나타나 있고, 그다음 시간위(四間位)에는 산해(山海) 뇌풍(雷風)이라는 지리적인 현상이며, 서북간에는 간위산(艮爲山)이 있고 동남간에는 태위택(兌爲澤)이 있으니 그것은 동남 해상의 습기가 서북 산지대의 화기와 상호 변화하여 담우(曇雨) 풍뢰(風雷)를 일으키게 되는 뜻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복희팔괘에 나타나 있는 과상(卦象)은 만물을 생성 지양하는 자연의 본

상(本象)이 되는 것이며, 자연의 법으로 된 팔괘는 자연계의 체상(體象)과 부합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복희팔괘도는 또한 동북방에서 양이 생(生)하여서 남방에 정점을 이루고 다시 서남방에서 음이 생(生)하여서 북쪽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그것을 하나의 도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태극의 형상이 된다.

2. 주역(周易)

주나라 문왕이 밝혀낸 8가지 괘(卦)로서 문왕팔괘(文王八卦)라고 한다. 우주의 변화원리를 밝힌 8괘를 말하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변화원리를 8개의 괘(卦)로 그려낸 것이다. 1년 365일과 4분의 1일에 대한 역(易)이다. 우왕이 황하강의 지류인 낙수(洛水)에서 나타난 거북의 등에 표시된 부호를 보고 그린 것을 문왕이 완성하였다.

문왕팔괘는 오행(五行)이 삼극(三極)하는 가운데 발전해 나가는 우주의 여름의 변화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의 생수(生數) 5가 자리하여 우주의 여름이 분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완성인 화수미제(水火未濟卦)로 감리(坎離)인 물과 불이 정북과 정남방에 위치하여 중심축을 이룬다. 물과 불의 삼극인 두 기운이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수(生數) 5를 생성하게 된다.

문왕팔괘도는 아버지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조화의 서북쪽 숲(戌) 방위에 자리하고, 어머니 곤괘(坤卦)는 하추(夏秋) 교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서남방 10미토(未土)의 자리에 위치하여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장남(長男)과 장녀(長女)인 진(震)과 손(巽)은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는 방위인 동과 동남방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정동과 정서방에는 진태(辰兌)가 자리하여 진동태서(辰東兌西)가 된다.

문왕팔괘는 중심축을 이루는 중남(中男)과 중녀(中女)인 감리(坎離)를 제외하면 어느 것도 대칭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 조화롭지 못하고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해가는 여름의 역동적인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물과 불이 우주의 중심축이 되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만물을 길러내고 있는 형상이다. 생(生), 장(長), 성(成)의 3역(易) 중 장역(長易)에 해당한다.

3. 정역(正易)

☞ 2면 하단에서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7>
“새 나라의 새로운 말씀”

여기서 영생의 나라를 건설하는 법을 선포하고 있으며, 영생의 나라를 이루는 철학과 이념을 설교하고 있다. 온전한 인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다.

사람으로서는 새 나라의 새로운 말씀을 할 수가 없으며 새로운 과학을 논할 수도 없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귀의 영이 있다고 논한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것이다.

나를 의식하면 미귀를 의식했다가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가 되는 것이다. 나를 의식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예수도 몰랐다. 이 새로운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세포(細胞)

100킬로그램의 거구가 있고, 50킬로그램의 날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덩치가 크다고 결코 덩치가 작은 사람보다 세포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건 세포 하나로 보면, 얼마나 용량이 크고 넓고 무겁고 하는가 하는 차이와 발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대동소이하게 사람이 장성하면 약 60조 개의 세포로 몸이 구성됩니다.

세포란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며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로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예로 짙신벌레, 아메바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다세포 생물'로서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끼리, 사람, 각종 식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세포 생물은 체계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세포 → 조직 → 기관 → 개체의 순서로 되어 하나의 생명체로 구성됩니다.

세포는 원형질막으로 둘러싸인 단위체로서 막 내부는 핵과 여러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수용액[세포질(cytoplasm)]으로 채워져 있고, 성장과 분열을 통해 스스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가장 작은 화학적 단위인 원자가 서로 결합하여 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철은 철의 원자의 구성비로 서로 결합하여 철 분자가 되어 철이 됩니다. 세포도 다양한 그 막 안에 다양한 분자가 갇혀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서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그 안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가면서 세포가 생겨났으며, 바로 이 세포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고 하는 '화학진화설'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세포의 출현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포는 생명체가 가진 기본 특징인 음식을 통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하나의 수송망을 가지고 있고, 정교한 통신망과 쓰레기 처리장 등등. 또 자신과 같은 세포를 복제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어서 생겨난 후부터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의 종류는 감각세포(sensory cell), 줄기세포(stem cell) 등 수십억 종인데, 가장 간단한 생명체의 형태는 단세포 생물로 단 한 개의 독립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한 개의 세포인 수정란이 성장과 분열을 반복하여 형성된 여러 종류의 다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집합체로, 눈 코 입 귀 뇌 내장 손발 등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세포는 난자(ovum)로 크기가 100-150μm이며, 가장 긴 세포는 신경세포(nerve cell)로 무려 1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타조 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세포(10cm 이상)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생명활동에 참여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세포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구실과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김주호 기자

구세주 예배 말씀집

3

신간서적
승리재단 서구부

2000년 11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138쪽 / 2권 분량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3권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복희 8괘

▶ 고태극도

▶ 문왕 8괘

▶ 정역 8괘

이기는 삶

행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열 배나 되는 적과 싸우게 되었다. 싸움터로 가던 도중 대왕은 작은 사원에 들러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장수들과 병사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왕은 손에 동전 하나를 들고 말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쳤다. 이 기도는 틀림 없이 영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동전을 던져 영험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이 동전을 공중에 던져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대왕은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하늘 높이 던졌다. 모두 숨을 죽이고 동전을 주시하였다. 군사들이 떨어진 동전을 보니 동전은 앞면이 위로 올라와 있었다.

"앞면이다! 우리가 이긴다!" 기쁜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단번에 올라갔다. 병사들은 용기배배하여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으로 물러섬이 없이 싸웠다. 그래서 그들은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말했다. "운명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가 이기다니요. 이긴 기적입니다. 저희가 열 배나 되는 적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 "그렇까?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이었는데! 나는 그저 패배 의식에 젖어있는 병사들의 두려움을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으로 바꾸어 놓고 싶었을 뿐이래네."

왜 알렉산더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운이 되풀이되는지를 연구한 결과 운 좋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확실성을 즐긴다

는 점이다. 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항상 확실한 것만 찾고 불확실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데 비해 운 좋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더 많이 관여했다.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는 흙터를 칠 수 없고 낚시줄을 물에 드리우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시도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행운은 용기를 가지고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과학적인 발명이나 발견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우연한 기회는 평소 자질을 갖춘 사람,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

게 찾아온다. 게으른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란 없다. 인뜻 보기에는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필연적인 결과이다.

성공을 향해 걸어가자면 많은 역경과 난관이 앞을 막는다.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역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공은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연한 기회를 맞이하는 행운도 없을 것이다. 우연한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이다.*

건강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의 흐름은 항상 파괴와 멸망, 혼란과 무질서 쪽으로 일방통행 하는 것 같지만, 베일에 감추어진 숨은 원리와 법칙을 알고 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 말은 모든 것을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앞길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은 피가 탁해지는 마음과 생활습관으로 획일화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피가 맑고 깨끗해져 젊음과 회춘과 불로장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혁명적 대전환점에 와 있다. 오늘날에야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안겨주게 되었다. 불로장생의 핵심 중의 핵심, 피가 맑아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희망을 크게 갖는 마음이다.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다"는 말은, 고등한 생명체가 되는 인간에게는 수명(壽命)과 곧 직결되는 마음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도, 또한 극한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원기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작은 희망이라

도 품고 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삶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고 해도 삶의 희망이 없으면 얼마 못 가 시들해서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기왕이면 더 큰 희망을 품고 살면, 더 큰 힘이 솟아나고 더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큰 희망은 큰 자력을 이끌어낸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이러한 사실에 크게 공감할 한다.

이 세상에 희망 희망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불로장생의 희망을 갖고, 그것의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다.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 없어진다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살고자 하는 희망이 오늘을 이룩했다.

둘째는 생명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세계 유수한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민족은 없다고들 한다. 외세의 침략을 900여 회 이상을 받고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민족성만으로도 과거 '생명중중사상'이 골수에 사무친 천손민족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닐 것이다. 신은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인의 생명중중 사상은 지구에서 파멸의 위기로부터 구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세태에서는 그런 정신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다리 뻗고 아직 살 만하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세계적으로도 정이 많고 순결한 동방예의지국의 정신을 소유한 민족으로 통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선(善) 중에 최고의 선이고, 의(義) 중에 최고의 의가 바로 생명중중사상이다.

셋째는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승리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라는 말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 속에 요동치는 감정상태에서 항상 선이 악을 이기고, 합리적 이성이 독선적 욕심에 의한 감정을 이기고, 양심이 비양심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바른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마음,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 양심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욕심에 속한 마음이 있다.

대개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비양심에 지는 생활에 익숙한 게 현실이

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기를 펴지 못한 까닭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사실, 진짜 양심대로 살면 하늘도 감동하여 행운과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인의 말씀이요 수많은 경전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거스르는 자가 역천자(逆天者)다.

그밖에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희생적인 마음, 용서하는 마음, 매사에 웃는 마음 등등 많이 있다.

진리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재미있으면서도 심오한 이치를 발견하게 된다. 또 그 오묘한 이치와 작용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무릎이 쳐지면서 감탄이 절로 난다. 이러한 신비한 불로장생의 비법을 하나의 기고란을 통하여 완전히 설명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다.

우선, 불로장생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그 가능성이 계산적으로 점쳐진다면 욕심 버리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몸으로 익히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오늘날을 당하여 이런 위대한 학문과 최고의 종교(宗教: 최고의 가르침)의 정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ecret of salvation?

구원의 비밀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 The secret of salvation is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John 3:5).

만약 사람이 하나님에 되지 못한다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 Unless humans become God, they cannot gain salvation.

마귀의 영적 무덤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에 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 Without getting out of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and becoming God again, no one can obtain salvation.

하나님이 다시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귀'와 '나라는 의식'을 이겨야만 합니다.
▶ To become God again, humans must overcome 'Satan' and 'self-awareness'.

구원의 목적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 The subject of salvation is not "I" but "God".

'나'는 죄인이며 마귀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I" can not enter God's kingdom because "I" am a sinner and Satan.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 Only God can provide salvation and everlasting life (Jeremiah 10:10)*

by Alice

수(精髓)를 접하게 된 것에 대하여 천지신명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의 불로장생의 비결이란 결코 어렵고 먼 데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으로부터 차차 익혀 나갈 수 있다는 깨달음, 그런 큰 깨달음을 독자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글쓴이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흔히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하였을 즉, 우리는 위대한 도전(불로장생)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다. 하나하나 깨달아 실천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위대한 것들이란 실은 평범한 가운데 발견하여 일구어낸 것들이다.

이 비법을 읽고서 독자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가운데 불로장생의 기쁨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에 도전해 볼 수가 생긴다면 좋겠다.

불로장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불로장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것은 그 방법의 길과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간사 모든 것이 알면 쉽고 모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꿈같은 일이라는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당신은 불로장생의 반은 성취한 것이다. 그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1편 (3. 정역(正易))에서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밝히려던 역(易)이다. 주역 계사전에 범삼백육십(凡三百六十) 당기지일(當基之日)이라 하여 1년 360일에 대한 역이다.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을이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천지가 바로잡힘으로써 건곤(乾坤)의 부모가 제자리를 잡는다. 곤남건북(坤南乾北)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지천대(地天泰)의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조화로 운 세상이 열린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과상이다.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변화 질서에 따라 3남, 3녀가 각기 제 짝을 찾아간다. 소남(小南)인 간(艮)은 정동(正東)으로 소녀(小女)인 태(兌)는 서방(西方)에 위치하여 천지부모(天地父母)의 역할을 대행한다.

천지부모(天地父母)인 곤(坤)과 건(乾)이 종(繼)으로 자리잡아 우주 변화의 바탕인 체(體)가 되고, 소남(小男)과 소녀(小女)인 간(艮)과 태(兌)가 쓰임인 용(用)이 되어 동서 세계의 종교(宗教)와 문명(文明)을 통일(統一)하고 지상에 태평성대

(太平聖代)의 조화문명(造化文明)을 열게 된다.

정역팔괘(正易八卦)는 우주의 가을의 변화 섭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극(無極)의 십(十)수 하나님이 중앙(中央) 토궁(土宮)에 5와 10으로 자리하여 이기신 하나님(十勝)이 되어 빼앗겼던 우주를 회복하여 원천회복의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완성역(完成易)이다.

결론

희역(羲易)의 복희(伏羲) 8괘(八卦)는 원천회복(原天回復)의 설계도(設計圖)이고, 주역(周易)의 문왕(文王) 8괘(八卦)는 현재의 우주 변화의 원리이고, 정역(正易)의 정역(正易) 8괘(八卦)는 완성된 우주의 원리로 천지공사의 완성도이다.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시작은 희역(羲易)이고 변화와 발전은 주역(周易)이며 결론은 정역(正易)이다. 천지(天地)라 함은 우주(宇宙)를 말한다. 그래서 역(易)이란 우주의 변화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자가 가족으로 맨 주역(周易)의 책 끈이 3번 떨어질 때까지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정역이다. 공자는 주역(周易)의 시대가 지나면 360공의 주인이 중앙에 좌정하는 정역의 시대가 온다는 역(易)의 이치를 알지 못했다.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정역8괘(正易八卦)를 하늘의 계시로 받아서 그려냈을 때 공자가 천히 김일부 선생 눈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어 선생을 무수히 칭찬하고 갔다고 한다.(서울대 이정호 교수 역 "정역" 참조)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년이 360일이었던 지구가 우주의 변화에 의하여 궤도를 수정하여 1년이 365일이 되었으며 앞으로 1년 365일인 이 시대가 끝나고 1년이 360일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성경(聖經)에는 지금부터 5,000년 전(前) 노아 때가 1년이 360일이었으며 노아 홍수 이후에 1년이 365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6,000년 전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의 싸움에서 천신이 지신에게 패하여 지신(地神)에게 우주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이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으로 전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三位一體)가 깨어지며 에덴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낙원(失樂園) 사건이다.

하나님은 마귀(魔鬼)를 멸하고 다시 삼신일체(三神一體)를 회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각 시대를 열어가갈 하늘의 사람을 차례로 출현시키게 된다.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 선천(先天)의 복희씨(伏羲氏)와 문왕씨(文王氏), 후천(後天)의 수운(水滸)과 화운(火雲), 중천(中天)의 목운(木滸)과 금운(金滸)이 그 사명(使命)을 받은 천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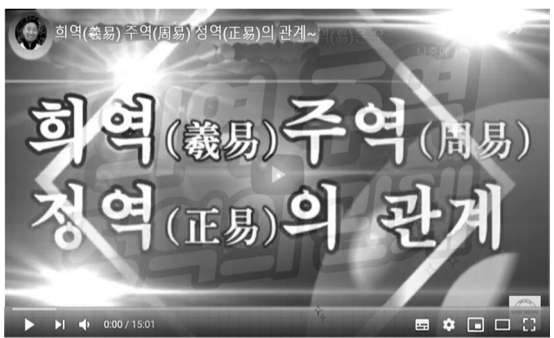
그러하여 천(天), 지(地), 인(人), 만물(萬物)의 사상(四象)으로 갈라진 우주를 중천(中天)의 81궁(宮) 금운(金滸)에 와서 다시

하나로 회복(回復)하여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眞歸一)을 완성하게 된다. 금운(金滸)이 곧 토운(土滸)이요 황극(皇極)이며, 정역(正易)이다. 1981년부터 이미 정역시대는 열렸으며 이 세상은 서서히 인간이 하나님에 되는

영생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역시대(正易時代)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먼 미래세에 올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천(中天)의 목운(木滸)과 금운(金滸)은 거론도 하지 않고 후천개벽(後天開闢)으로 끝내버리고는 배달국이니, 한배검이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만(一萬) 년이니 하면서 역사 타령이나 하고 있다.

또한 역학(易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와 64괘의 원리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사



주(四柱) 명리(命理)와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들어다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현세에는 이는 이가 없으니 점도 치지 말고 관상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종교인 및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가을의 추수를 맡은 백보좌의 심판자 정역(正易)의 주인공(主人公)이 역사하시는 승리제단(勝利祭壇)에 찾아가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유율법(自由律法)을 실천하여 영생(永生)의 대복(大福)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희역주역정역의 관계
https://youtu.be/6vcd0eMPYIM

음식과 수행

양배추의 효능과 주의사항

위장 기능 향상에 탁월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항암 효과까지

양배추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로서 가격도 비싸지 않다. 또한 섭취에 부담이 없고 맛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영양성분은 많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로마시대 시저의 군대가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양배추를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식용의 용도도 있었겠지만 약품으로 쓰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혈액응고의 작용이 있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소독약으로 쓸 수 있으며 염증으로 열이 날 때에는 소염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양배추는 인간을 밝고 원기있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으로는 위장 점막강화 및 위궤양에 도움을 준다

양배추의 유황과 염소성분은 위장의 점막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항궤양성 비타민U(메치오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궤양 예방 및 치료에 좋다. 특히 당근과 함께 복용하면 잇몸의 고름과 심이 지장궤양 치료에 좋다고 한다.

두 번째, 혈액순환 향상에 좋다.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향상시켜 주고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백혈구 활동을 향상시켜 각종 암을 예방한다.

세 번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켜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

네 번째,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아서 여드름 치료에 좋다. 또한 유효성분은 살균 작용뿐 아니라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성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양배추에 함유된 칼슘은 체

내 흡수율이 다른 음식보다 탁월하며 특히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섭취가 더욱 잘 된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 외에도 뼈에 칼슘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칼슘섭취가 중요한 임신부나 폐경기 여성에게도 좋다.

이 외에도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에 매우 좋은데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서 혈액지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대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각종 대장 질환을 줄여준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익히면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많이 손실되고 유효이라는 성분이 휘발성으로 변해 맛도 없어진다. 익힐 때는 되도록 재빨리 살짝 데쳐서 비타민 C의 손실을 줄인다. 양배추를 다듬을 때 흔히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푸른 잎과 심을 잘라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약 방지에서 약은 꺼내고 봉지만을 먹는 격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푸른 잎과 심 부분이 가장 많은 영양가가 있는 부분이라 버리지 말고 먹도록 하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양배추를 살짝 익혀서 섭취하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 갑상선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배추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린다. 양배추를 실온에 보관할 경우 쉽게 건조되고 색이 변하게 되므로 바깥쪽 잎 2-3장을 떼 양배추의 몸통을 싸서 보관하면 갈변현상도 막을 수 있다. 또 잎보다 줄기가 먼저 썩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줄기를 잘라낸 후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줄기 부분을 채운 후 랩으로 싸면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

이승우 기자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지금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시기~

반대생활을 철저히 해야 자신의 뜻을 이룬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연단을 받을 때 반대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계속하니 죄의 그 더러운 피가 소변으로 대변으로 쏟아지는데 그냥 팔팔 쏟아졌습니다. 피를 그렇게 많이 쏟고 나면 어지러울 텐데 이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일을 더 했습니다. 그 피를 쏟으니 더 힘이 솟구쳤습니다. 죄인의 피는 다 쏟고 하나님의 피로 바꾸어지니까 힘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현대인들은 바쁘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루 20~30분의 여유로 관절에 무리 없이 근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요가로 오게 승리해 보실까요?

신진대사 up~

효능: 고관절을 자극해서 고관절과 이어지는 허벅지살 다이어트와 허리통증을 줄여주고 상·하체 혈액순환을 원활하

게 해주어 붓는 것 예방. 하체가 가벼워진다.

동작①: 왼쪽다리를 접고 앉아서 오른쪽다리를 뒤로 뻗어 발등을 바닥에 댄다. 양손은 무릎 옆 바닥을 짚고 상체를 바로 세워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척추 기립근 강화~

효능: 가슴 확장. 갑상선을 자극하고 척추를 바로 세워 피로를 풀어준다. 골반 주위 혈액순환 도움.

주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동작②: 왼쪽무릎은 접고 오른쪽다리는 뒤로 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끌어 올리고 고개를 들어, 내쉬는 숨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혈액순환 대사가 up~

효능: 골반교정. 허리와 다리의 피로를 줄이고 생리통 개선효과. 협업. 내분비계 신선한 혈액공급. 굳은 목,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줌.

주의: 양쪽 골반과 어깨가 바닥으로 내리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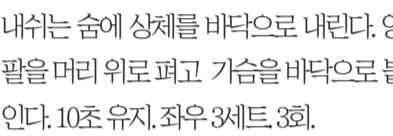
동작③: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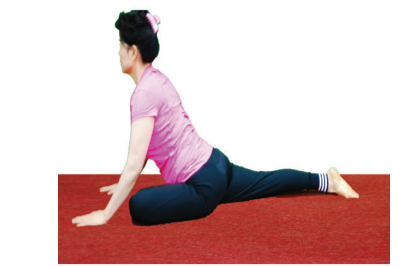
④



③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바닥으로 내린다. 양팔을 머리 위로 펴고 가슴을 바닥으로 붙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3회.

흉선을 발달, 후굴력을 높여 림프흐름 촉진~



①



③

효능: 하체의 유연성이 증대되며 탄력 있는 다리 라인을 만들어줌. 옆구리 근살 제거. 복직근 자극하고 수축하여 복부 및 다이어트에 도움.

주의: 어려운 경우 발을 팔꿈치에 걸고 왼팔은 45도 위를 향해 쪽 퍼준다

동작④: 왼 무릎은 앞으로 접는다. 오른 무릎은 접어 오른쪽 귀 옆으로 올린다. 오른팔에 발목을 걸어서 등 뒤로 양손을 짚는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나를 이기는 길

피의 원리를 실천하다가 잘 안 되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영생의 원리를 범부들이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부처님과 범부의 차이점은 인내력에 있다.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참고 견디는 인내력으로 뭉쳐진 신이다. 하지만 범부들은 인내력이 없다.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건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성격 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뎠다. 왜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느냐 하면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큰 희망을 가지라고 한다. 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소망 중에 영생처럼 큰 소망은 없는 것이다. 넘어지면

인내력과 명상

다시 오뎅이처럼 일어나서 달려야 한다. 이 사람도 영생을 성취하기까지 한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 결코 아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해서 기어이 그 고지를 달성한 것이다. 인내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인내력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깨닫기 위해서 명상을 했다. 명상이라고 하니가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명상을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내가 한 명상은 그런 류가 아니라 다이나믹 명상이라고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을 했다. 다이나믹 명상은 오소 라즈니쉬라는 인도 출신 철학자 겸 명상가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떨림에 몸을 맡기고 때로는 작게 때로는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일종의 댄스와 같은 것이다. 이 명상은 1970-80년대 일과 생활에 쫓기며 스트레스

받던 많은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요즘 명상이 대세이다.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명상 시간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니 명상이 심신에 미치는 효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명상은 정신건강과 육체, 더 나아가 세포 수준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롭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이스라엘 출신 유발 하라리 박사는 -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개의 질문이라는 세 권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유명한 교수 - 매일 1시간 반 이상 명상을 한다고 한다. 그는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기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명상의 효과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떠오르는 온갖 생각과 상념들을 관찰하지만 하지 그에 끌려들어가지는 않게 된다. 명상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

시 한편
생각 한 줄

그 겨울의 시

박노해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팬찮을랑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열어 죽지 않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앓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웬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흘리다가
눈산의 새끼노루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나의 방엔 출창 2짝으로 된 큰 창문이 있다. 겨울엔 뽕뽕이를 붙여도 코가 빨개질 정도로 외풍이 심하다. 내가 무슨 용기리 통뻐도 아는데 싶어 이번 겨울부터는 따뜻하게 지내려고 이중창으로 갈았다. 같고 나니 훨씬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감사한 기분이 절로 났다.

추운 겨울, 하루의 일과를 고달프게 보낸 이라 할지라도 저녁이면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가정을 나온 노숙자와 청소년들에게 겨울은 서럽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고향과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 세계의 난민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서글프고 무섭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출하여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이 넘고, 코로나 여파로 학교에 매일 등교하지 않고 아동센터도 문을 닫아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도 3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 모두 신경을 써서 도와야 하겠다. 내 나 이 또래의 한 우수고객은 몸이 조금 불편하여 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루는 그의 부탁으로 그의 통장을 들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찾다가 통장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언뜻 보았는데 3개 이상의 국제기구와 민간구호단체에 기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신도 어려우면서 다른 이웃의 이름을 보살피는 그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다. 시민들이 십시일반(十畝一飯)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데 더 많은 동참을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학시절 삼양라면 본사에 떨어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은 종로에 나온 어르신들로 정사전을 이루었

다. 라면 한 그릇에 300원이었던가, 아무튼 아주 싼 가격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했기 때문이다. 사실 삼양라면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MSG를 사용하지 않는 착한 기업이다. 처음으로 라면을 출시할 때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개당 10원을 판매하여 5년 간 적자를 보았다. 예전에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난받았지만 그 기름은 타 회사들이 사용하는 식물성 팜유보다 고급이었고 신체에도 해롭지 않다고 나중에 재판에서 판결이 났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나마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은 공공 복지기관과 양심적인 기업과 시민들이 주축을 이룬 민간복지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독거노인들은 겨울나기가 쉽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데 옷을 많이 껴입으면 다니시기가 더욱 불편해진다. 폐지나 고물을 주우시는 어르신들도 손발이 시렵고 추위로 몸이 쉽게 피로를 느낀다. 게다가 난방이 잘 안 되는 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몸살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젊은이들이 주위의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어 주시길 바란다. 내가 최근에 만난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이 특히 많았다. 우웃값을 받으려고 한 할머니께도 수급을 가니 요구의 액수를 말씀드렸는데도 몽탕이로 지폐를 내 놓으시길래 걱정이 되어 가까운 보건소나 신경외과에 가서서 예방차원에서 치매치료를 권해드렸다. 우유가 배달되지 않는 요일에 우유가 안 나온다고 자주 전화하시는 한 할아버지께도 수급차 방문해서 조심스럽게 치매예방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려니 이미 병원에 다니신다고 하시며 우실 정도로 침울한 표정을 지으셨다. 친한 주차장 주인할아버지도 금방 들은 숫자도 기억 못하시고 요일금도 와서 걱정이야. 멀쩡하시던 친한 한

할머니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가 와서 전화 드릴 때마다 "내가 이제는 요양원이란 곳에 왔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예전에 가지 않았느냐고 대꾸한다. 아무튼 나는 이런 어르신들께 그럴수록 용기를 내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도 잘 챙겨드시라고 말씀드린다. "늘기도 서러운데 이래저래 실의에 빠져선 안 됩니다. 아자아자-하시며 힘내세요!"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아직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나로서는 늘 하늘께 감사드리며 누구든지 아끼고 보살펴야겠다고 예배를 볼 때마다 다짐게 된다. 승리재단의 교리는 단 한 가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라고 구세주는 말씀하신다. 하지만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여기며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꼈기에, 한 사람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했다. 타인을 100%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시지프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굴리듯 구세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겠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다보면 자신도 고달프고 용기와 인내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니,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야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이 될 것이다. 예전에 한 책방에 들러서 구입한 노래책 안에 한 가사가 이 겨울의 길목에 서니 자꾸 머리에 떠오른다. "물에 빠져버린 돈 없는 자 당신은 건질 줄 아요? 오다가다 만난 그 사람의 슬픔을 당신은 아요? 지나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이해 피해 가려요? 혼자 살려하는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구려!"*

라준경 / 대구승리재단 책임서사

자신 속의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야 소원 이루어져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항상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버릇을 가져야 그 래야 마음의 투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 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가 지고 움직여야 되고, 또한 시간시간이 여 러분들이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피가 점점 변하지,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지 않으면 그 피가 변할 수 가 없는 거죠? 항상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는 그러한 마음의 싸움을 해야 여러분 들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 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통 제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가 없고, 또한 자기 자신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그리 한 생활을 습관적으로 가져야, 마음의 초 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초점을 가지 고 맞춰야지, 사이클을 맞추기 시작을 해 야 돼요. 마음의 사이클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사 이클이 맞아야 하나님의 영이 계속 들어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을 점령할 수가 있는고로 하나님의 지배 를 받기 시작하려면 마음의 싸움을 시작 해야 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마귀를 이기게 돼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 마귀는 지게 되어 있고, 마귀는 후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그러고도 그러한 마음 의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만날 승리제단 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승리제단 나온 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싸움 을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 어야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 의식 되고야 마는 것이지,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 는 것이옵시다.
 그러고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을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클과 맞추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만 그제서부터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옵시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마귀 를 이기면 그대로 마귀와 싸움 적마다 그 전쟁을 할 적마다 하나님이 이기기만 이 기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가져라
 그러고로 여러분들 마음의 위치가 항 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치가 나라는 의식의 마귀 편에 서면 마귀가 되어 결단고 지옥에 갈 수밖 에 없는 것이옵시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할까, 어 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가 까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점점 늘어야 기쁘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 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 게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겠다 는 이러한 일념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 음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 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승리제단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 지구 땅위에는 하나님의 집이 승리 제단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승리제 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애 를 써야 되고 또한 세계적으로 승리제단



구세주 조희성님

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려면 간부들은 그 대로 헌금이라든지 승리제단의 물건이 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잘못 되면 고쳐서 쓰고, 승리제단의 물건에 대해서 손실이 오지 않도록 틈만 있으면 손질을 하고, 틈 만 있으면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승리제단을 더럽게 하고, 승리제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것 역시 마귀 노름을 하는 거죠?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말단 신자라 할지라도 역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도 손색이 없도록 누가 봐도 깨끗하다고 하고, 누가 와서 봐도 참 제단이 너무나 무 아름답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 록 만들어야 하겠죠? 그대로 페인트를 칠 한다든지 기둥 같은 걸 전부 손질해서, 현 재 그 기둥이 여러분들 보드시피 벽들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전부 손질을 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돈을 조 급씩 조금씩 거뒀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승리제단은 참 멋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 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 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 은혜 못 받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서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서 은혜가 받아지고 은혜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 고서는 자기의 일만, 자기 이익만 찾아서 생활하는 자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 어요. 승리제단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 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꾸 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만들어놔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것 다 알고 있어 요. 사람의 몸이 신이고, 사람의 피가 사 람의 영이고, 피가 사람의 생명이고, 사 람의 피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

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핏 속에는 마귀 피도 있고 하나님의 피도 있 는고로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병존 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신이 마귀한 데 져가지고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으 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강해져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려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입 에서는 찬송가가 떠나갈 일이 없고, 항상 그 입에서는 기도하는 법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옥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가르 쳐 줬죠? 그 기도문이 바로, "무량대수 마 귀 일초 동안에 무량대수 횡수로 계속해서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 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겨져서 성령의 멧 들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행불 로 박멸소탕 박멸소탕 박멸소탕"
 이와 같은 기도문을 길에 걸어서 다니면 서도 기도문을 외우고, 제단에 앉아서도 기도문을 외우고, 제단에 출석할 때에 최 소한도 한 시간, 삼십 분 이렇게 먼저 와 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기성교회들은 잡담을 너털너털 주절주절 하면서 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마귀 죽이는 기도를 하 죠? 마귀 죽이는 기도가 기도지, 자기의 요구사항을 호소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 에요. 아시겠어요? 자기 속에 마귀만 죽 으면 자기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마귀만 죽으면 무엇이든 원대로 돼
 하나님은 영인고로 마음 자체가 무엇 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지금 이루 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그 사정을 낱낱 이 알고 있죠? 그것 말할 필요가 없어. 뭘 해 달라, 뭘 이루어 달라, 병 낫게 해 달라,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마귀만 죽 이면 병이 낫고, 마귀만 죽으면 사업이 잘 되고, 마귀만 죽으면 뭐든지 하고자 하는 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 죽이는 기 도가 가장 상당되는 기도이고, 마귀 죽이 는 기도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아시겠 어요. 이 세상이 왜 종교가 없다고 하느냐 하면 기도법을 몰라요. 이 세상 종교들이 기도법을 몰라요. 마귀를 죽이는 것이 기 도이지, 주절주절 하면서 자기 요구사항 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강해져야 소원이 이루어져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영이 죽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 은 생명이 죽는 거죠? 생명이 사람의 영 이요, 하나님의 영인고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 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의 영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하 나님의 영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 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 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식된 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지만 내 몸속에 하 나님이 계시는고로 항상 하나님이 내 마 음을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해져야 내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주지, 하나님이 약해져가지고 만날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있는데 능력 이 없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암만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해 봐야 안 돼. 능력 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감자가 되어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2000년 11월 1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장 이삭의 하나님》 (13) 마할랏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분노를 진정시키다



마할랏이 남편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힌

(13) 마할랏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분노를 진정시키다
 에서의 '형이 아우를 삼킬 것이'라는 축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자신의 복을 다 빼앗아 갔다는 생각에 이 르자 그에 대한 미움이 극도에 달했습니 다. 분노를 식이지 못한 채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이자 자신 의 아내인 마할랏에게 "동생 야곱을 죽이 고 말겠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편 에서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마 할랏은 형제간의 살인만큼은 꼭 막아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할랏은 남편 에서와 이복 사촌지간이기에 평소 오라 버님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오라버님, 오라버님의 억울한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살아계 시는데 어찌 동생 야곱을 죽일 수 있겠습 니까? 그리고 오라버님께서 수천 리의 길 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백부 이스마엘의 집에 찾아와서 그의 신전 카바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동족의 여인을 아 내로 맞이하여 나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 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던 일을 잊으 셸나요?"
 에서의 아내의 진심어린 말에 당장 동 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가라앉습니 다.

하지만 집안에서 야곱이 눈에 뵈지 않 다 이를 알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 실 때쯤에 당장 이놈의 야곱을 요절을 내 고 말 거야." 하고 잠꼬대하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마할랏은 아 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시어머니 리 브가에게 달려가 형제간의 피를 보지 않 도록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만 될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리브가는 신안심이 깊고 현명한 며느 리 마할랏의 조언을 귀담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자신의 처소에서 하 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니중 난 자가 먼저 난 자보다 복이 있다 고 말씀하신 대로 차남 야곱이 장자축복 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 암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어떤 수난을 당할지 걱정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간구 합니다."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리브가 50세 때에 태몽 계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128세의 리브가에게 나 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리반의 집 으로 잠깐 피하게 하라. 다만 이번 그의 여로에는 아비의 중들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올해 일흔 일곱 살의 야곱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 라함의 친척 중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인즉,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그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어서 그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내가 아 브라함에게 준 그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브엘세바 에서 2000리나 되는 먼 곳에 있는 하란까 지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이미 입장에서 몹시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을 신실히 믿는 리브가는 순종하는 마음 으로 남편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사이 가 좋지 못하여 다투는 일도 부쩍 늘었습 니다. 아무래도 서로 떼어놓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을 나의 오라버니 리반의 집으로 보내면 어떻까요? 또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다 보면 눈에 맞는 여인이 생길 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먼 길 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듭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이 여인을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아내 리브가의 말에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야곱은 본래 천성이 여 자를 몰라서 그런지 77세가 되도록 노총 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뿐 이라 아들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아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 버지 이삭은 아들 탓만 할 수 없는 처지 였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먼 곳으로 가더라도 하 나님을 믿는 아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거리쯤은 각오해야지 않겠소. 여호 와게서 함께하실 터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오. 당신을 나의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 해서 2000리나 되는 먼 길을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보내지 않았소. 또 만이들 에서가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서 2500리나 되는 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구하여 오지 않았소." 하고 이삭이 그의 아내 리 브가에게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상의 한 결과, 에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야 곱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였 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하기 를, "하란에 계시는 나의 오라버니 리반 에게 피신하여라. 형이 너를 죽이면 형도

여호와로부터 외면당할 터 인데 어찌 내가 하루에 너희 두 형제를 잃어버려야 되겠 느냐? 오늘 형 에서가 자신 의 처 유딧을 보기 위해 헷 족속 브에리 땅으로 갔으니 속히 채비를 꾸려 준비해두 었다가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찍 떠나 도록 하여라."하고 재촉하였습니다.
 에서의 처 유딧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삭의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친정집으 로 돌아갔는데, 에서는 유딧을 보기 위해 가끔 처갓집으로 가서 사흘 내지 길게는 일주일간 머물다가 오곤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야곱 이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딸을 아내로 삼 을 것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 이삭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을 엄중하게 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르기를, "제가 헷 족속의 딸을 떠느리로 보아 내 삶이 싫어 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하였거늘, 만약 차남 야곱마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 는 헷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한다면 내 평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 하고 또 단단히 일렀습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를 맞이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곧장 밧 단아람¹에 계시는 네 외할아버지 브두엘 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외삼촌 리반 의 딸들 중에 아내로 맞이하라."(다음호 에 계속) * 안헬라
¹ 밧단아람: '야담의 들'이라는 뜻으 로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지방에 있는 하란의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 해서 이곳은 유브라테스 강과 하부르 강이 합류하는 곳으로부터 상류 쪽에 위치합니다.

One's Wish Comes True by Letting God Become Strong in Themselves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Everyone has a thinking ability. Only if they have a focusing habit all the time, they can fight against their heart. The focus of thought should always be on God all the time. You should eat the Fruit of Life every time, then your blood changes. If you do not eat the Fruit of Life with your heart, then the blood cannot change. You must always fight with the heart to eat the Fruit of Life so that you can overcome yourself and can control yourself. If one's heart cannot be controlled, they cannot defeat themselves, also not only they cannot overcome themselves but also they are controlled by the devil always. Additionally, only when one has a habit of controlling one's heart, their heart focal spot should be on God, and the cycle of their heart start to fit that of God's heart. Your heart must be in the same as the cycle of God so that the Spirit of God can continue to come, then the spirit of God can occupy the heart of humans. If one starts to be ruled by God, they should fight against their minds.

One can defeat the devils only standing on the side of God

Beginning the fight of mind, fighting between God's mind and devil's mind, and standing on the side of God, the devil will lose and retreat. Therefore, one cannot be become God just by coming to the Victory Altar without fighting against the mind of the devils. Through fighting with one's fight and supporting God from the situation of God continually in order for the heart of God to overcome the heart of the devils, you can overcome the devil, only then God can become a Victor, winner, God becomes the awareness of 'I' finally. When the awareness of 'I' becomes God, one can become God.

Therefore, whatever you are doing, your mind should focus on God, only if you try to set the cycle of your mind to that of God, then fighting against the devils starts. Whenever fighting against the devils, if you defeat the devil, you can become Gods.

Have a heart of pleasing God

So you should stand on the side of God all the time, if your mind stands on the side of the devil, then you will become devils and go to hell. In order to stand on the side of God, you should have a heart of pleasing God, a loyal heart, and the mind of living for only God all the time, then you can become

Gods. You can not become God naturally.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everything of the Victory Altar

There is no the house of God except for the Victory Altar on the earth. So you have to take effort for the Victory Altar in order for the name of the Victory altar to shine globally, the seniors must fix the items of the Victory Altar if they go wrong, trim goods on the Victory Altar whenever we have time to prevent any loss, clean it up. If you let the Victory Altar, the house of God, dirty, or don't care about it, then it's also a devil's action. Regardless of rank, as it is the house of God, however you do, we should make sure that the house of God is no inferiority and that the altar is so beautiful and clean, right? You should make the Victory Altar clean and beautiful painting or trimming all the columns and stuff. That is for God.

Those who seek their profit, they do not receive the grace of God

However you do or no whatever you do, taking effort to please God, the grace comes to you. Otherwise, those who only seek their own work and self-interest will never receive the grace of

God. You cannot receive the grace of God just with coming to the Victory Altar and sitting there. You should clean it and decorate it as a holy castle enough for anyone to be admired.

Now you know everything. You surely know that humans are Gods, their blood is their lives, their blood is the spirit of Gods. However, there is the blood of God and the blood of devils in humans. So the spirit of God and the spirit of devil coexist in humans, as the spirit of Gods always loses to the spirit of devils, humans are ruled by devils, however you do this, in order for the spirit of God in me to be strong and defeat the devil, humans themselves have to be on God's side.

Pray all the time

In order to please God, you should sing hymns and pray all the time. Did This man teach you in the prison? That spell is "The Spell to Kill the Devil: Infinite devils, in a second, in infinite times, continually, forever, Rooting out all the Devil, Cutting them with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Beating him with the axe of the Holy Spirit Grinding them with the millstone of the Holy Spirit Buming them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Cleansing them with the fire of sulfur bakmyeolsotang(eradicate), bakmyeolsotang"

This man told you to pray a prayer walking on the street, sitting in the altar, and pray a prayer for at least half an hour before you come to the altar. All the existing churches pray a prayer of asking their wishes, but the believers of the Victory Altar do a prayer of killing devils. The prayer of killing devils is a real prayer. It's not a prayer to ask what they want. When the devil dies in himself, everything he wants comes true.

Only if one's devils die, their will come true as they want

As God is the spirit, it knows what humans want and what they should achieve in detail. You do not need to say what you want to do, what you achieve and heal your disease. Only if one kills one's devils in them, their disease will be cured. Only if one's devils die, their business is supposed to go well. The prayer of killing devils is the one conveying to God most. God listens to the only the prayer of killing devils. People don't know how to pray, that's why This man says there is no religion in the world. People do not know the way of killing devils. A praying of

asking something what they want is not a pray.

Only if one becomes a strong God, their wishes come true

People do not know when a man dies, his spirit dies. If a person dies, that is, if his spirit dies, it means that his life dies, as the lives of humans is their spirits and the spirits of God, the spirit of God is the spirit of humans, as the spirit of God exists in humans, they live. People cannot live without the spirit of God. Then they die. Due to the spirit of God, we live. So we should be thankful to God all the time. Pleasing God all the time and making God happy are the duty of God's children.

As God and you are not separated, God is in you, though the awareness of 'I' is the devil, God knows you. That is, only when God become strong, it solves your problems. If God becomes weak and lose to the devil all the time, the man always become a slave of the devil, so God will become weaker. A disable God cannot solve your problem no matter how you ask a lot. Therefore, the God in you must become strong to solve all your wishes.*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on Dec.1th, 2000

Translation: Angela Kim

지난 글에 이어 노자가 내담자로서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형식으로 도덕경 15장 약동섭천(若冬涉川)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澹兮若水之將釋
환혜 약빙지장석
: 흘러지기를 마치 얼음이 녹는 듯하여.

《노자》 "그렇게 얼어붙은 계곡 물(강물) 위를 헤매고 있었는데 말이요. 발밑의 얼음이 녹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요. 내가 곧이라도 얼음장 밑으로 빠질 것만 같았는데 아, 내 몸도 얼음과 함께 녹아 부서지기 시작했소"

《해석》 드디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은 나와 물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자존, 나라는 의식의 상징입니다. 그 얼음은 나라는 이름의 마귀 신이며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야말로 마귀 신의 대변자이자 마귀 신의 페르조나입니다. 나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을 찾아 나선 그 뜨거운 용심(勇心)에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내 자신도 함께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란 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 나, 껌테기 나, 자존의 내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는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기쁘거나 서럽고 힘들어서 우는 인간적 눈물이 아닌, 내가 해체되며 나오는 눈물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나라는 마귀가 죽어 그 시체가 눈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흘러보지 못한 눈물이어서 자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은 더욱 더 낫은 존재가 되어가

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지요.

《원문》
敦兮 其若樸
돈혜 기약박
: 내던지는 그 모습이 마치 통나무와도 같다.

《노자》 "아, 그 때 알았소 지금이 내가 나를 던져야 할 때라는 것을. 그 순간 깨진 얼음과 함께 내 몸이 계곡 물에 내던져졌소. 이제 죽는구나 싶은 그 순간, 내 몸이 통나무가 되어 계곡 물과 함께 흐르고 있었소"

《해석》 나를 항상 죽여라! '아상(我相)을 없애야 한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는 건가? 내가 죽고 나면 대체 누가 나를 한다는 건지,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내가 사라지고 소멸해 버리고 말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꿈의 장면은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돈혜는 '소박하다'의 뜻 외에도 '내던진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물에 던져진 나는 소멸할 것만 같지만 그는 나무가 되어 불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무의식의 바다에 몸을 던지면 나는 소멸할 것만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물에 빠지면 죽고 마는 인간이 아니라, 물과 함께 흐르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직 온전히 물과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물에 빠져 죽을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저 흐릅니다. 그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와는

꿈에 대하여...〈8〉 부제: 꿈의 상징으로 풀어 본 도덕경2



다른 타자(他者)일 때, 얼어붙은 그 강물은 맑고 건너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와 무의식, 나와 하나님은 하나, 나 자신입니다. 계곡물, 하나님도 실은 내 자신입니다. 내 내면에 흐르는 생명의 강자, 나라는 의식의 자리, 주체영 자리를 내놓아야 성립하는 영적 계약의 결과입니다. 돈오(頓悟)는 '영적 투신자살'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신이 내 자리를 꿰차는 영적 순교와 부활의 과정입니다.

돈혜 기약박(敦兮 其若樸) 이 장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
澹兮 其若谷
광혜 기약곡
: 텅 비어있기가 마치 계곡 같고

《노자》 "그렇게 통나무가 되어 함참을 물과 함께 흐르니 내 자신이 텅 빈 것 같고 마치 내가 골짜기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소."

《원문》
曠兮 其若谷
광혜 기약곡
: 텅 비어있기가 마치 계곡 같고

《노자》 "그리고는 내가 점점 해체되어 물과 섞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흙탕물이

니다. 지난 글에서도 다루었듯, 우뚝 솟은 봉우리가 남성성, 아상과 자존의 상징이라면 골짜기는 반대로 여성성, 모성(母性)의 상징이며 내가 낮아지고 죽는 자리입니다. 해서 『淮南자』(淮南子) 「추령훈」(脩刑訓)편에서도 '높은 것은 삶을 주로 하고 낮은 것은 죽음을 주로 한다. 구름은 수컷이고, 계곡은 암컷이다.'

라는 구절로 계곡을 내가 죽는 자리, 모성의 자리, 죽음을 통한 재생산의 자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물(水)과, 그 물을 품고 있는 골짜기(谷)는 하나입니다. 골짜기 없는 물은 제 존재를 드러낼 길이 없고, 물 없는 골짜기는 메마른 구덩이일 뿐입니다. 둘은 체(體)와 용(用)이요, 내용과 형식이며, 영과 육으로 하나입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처중지소오處衆之所惡' 지극한 선은 물과 같이 못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말과 '곡신불사谷神不死'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두 구절의 짝을 맞추어 보면, 물이 임하는 낮은 곳이 골짜기(谷)요, 그리되면 골짜기에 임한 물(水)이 바로 불사의 신(神)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곡(谷)은 곡신(谷神)이며 곡신(谷神)은 영육을 갖춘 불멸의 하나님의 신입니다.

통나무가 된 그는 더 이상 골짜기와 이질(異質)의 존재가 아닙니다. 골짜기(谷神)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
混兮 其若濁
혼혜 기약탁
: 섞이는데 마치 탁한 물과도 같다.

《노자》 "그리고는 내가 점점 해체되어 물과 섞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흙탕물이

되어 맑은 계곡물과 섞이는 것 같았소"

《해석》 통나무는 인간과 물의 중간적 존재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으나 아직 물이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여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아있던 개체성까지 해체되며 물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꿈의 노자는 이제 탁한 물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곡을 건너려던 인간적 진행이 하나님의 신, 곡신(谷神)에 동화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아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던지고, 맡기는 과정을 통해 탁한 물이 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꿈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인간에서 통나무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변해갑니다. 통나무가 되고 함참을 흘려 계곡과 하나된 다음, 다시 흙탕물로 변해갑니다. 점차 물 즉,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는 돈오(頓悟)에 이르면 점수(漸修)의 과정입니다. '맑이' '섞이' 되기까지는 견뎌야 합니다. '기름부음'으로 일게는 되지만, 기름이 부어지는 것만으로는 머리카락만 만들 거릴 뿐입니다. 내 자신이 기름 자체가 될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통나무와 같은 개체가 다시 해체되어 흙탕물처럼 흘러지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합니다. 개체성을 잃고,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점수(漸修)의 과정입니다.

약동섭천은 이렇게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여정을 한 프레임 안에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글입니다. 이 스토리는 내가 '나'인 채로 이루어지려는 자, 나라는 의식의 자리, 주체영 자리를 보전하려는 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용광로처럼 들끓는 그런 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후의 여정은 다음 글에서.*

金擇 / kimtaek8@nate.com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81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오 슬프대!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五. 오 슬프대!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3) 박태선하나님 화천(化天)하시다!

은 세계 마귀가 박태선님을 공격하기 위해 기장신앙촌에 집결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 집결한 마귀들이 영모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영모님을 압박한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은 세상마귀가 다 기장에 집결해 있다.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속에 최고의 마귀세력이 있다. 이 마귀세력을 분산시켜야 한다(82.3.15)”

“끝도 한도 없는 수로 문쳐진 마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81.11.14)”

위의 영모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 은 세계의 마귀가 영모님에게로 집결되어 있고, 그 집결된 무량대수 마귀들이 영모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다 들어가서 영모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영모님은 이 마귀세력과 싸우시기가 힘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끝도 한도 없는 수로 문쳐진 마귀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라고 하신 것이다. 또 “이 최고의 마귀세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하셨다.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영모님은 분명 힘든 싸움을 하시면서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 계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마귀떼들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긴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모님을 따르려는 무리들은 영모님의 영적말씀을 알아 들지를 못하고 가장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영모님 곁을 절대로 안 떠나려고 더욱 바짝 영모님 옆에 달라붙어 있다. 영모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영모님 옆에 붙어 있지만 실은 그 속의 무량대수 마귀떼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 영모님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영모님의 생명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마귀의 피난처는 인간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마귀들은 다 영모님을 따르려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 숨어 영모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모님은 그 무리들과 싸우면서 오염된 피를 계속 대야로 쏟으면서 사경을 헤매곤 하셨던 것이다.

“내 말을 잘 듣는 마귀새끼들이 있는데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쓸어넣을 거야(80.3월 말씀)”

위에서도 설명한 것같이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교인들은 영모님을 생명을 걸고 따르려는 제일 열심쟁이 교인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위의 영모님 말씀처럼 무량대수 마귀들이 들어간 마귀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내 말을 잘 듣는 마귀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다.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무리들에게 포

위되어 있는 영모님은 이 무렵 많은 종류의 병마가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 기침과 가래를 동반한 기관지 문제 또 당뇨 또 위장장애 등에 상당한 병소(病巢)가 있었다. 피를 대야로 쏟으면서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시력은 형편없이 나빠져서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쓰셔야만 했다.



예배 인도하시는 가운데 신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영모님

영모님은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미국까지 다녀오셨다. 그러나 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었다. 은 몸의 통증 때문에 매우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하였으나 그 강력하다는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 영모님은 너무나도 심한 통증의 고통에 시달려야 하셨다. 강력한 진통제로도 안 되니까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다. 물론 진통제로 사용을 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모님이 말년에 마약까지 했다고 나쁜 뜻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사실은 영모님 몸의 심한 통증이 진통제로는 안 되어서 마약을 사용하여 진통을 진정시키려고 하신 것이었다.

“생수를 타고 고도로 올라간 사람들을 피하여 나는 산중에 가서 숨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83.1.4)”

당신이 생수를 마시고 고도로 올라간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사람들을 피하여 산중에 가서 피해 있어야 하신다는 말씀

은 결국 당신은 이 마귀떼들 때문에(열심쟁이라고 하는 교인들)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영모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영적인 사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사람이 안 죽는다는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증거를 하시던 분이신가! 영모님은 승리자요 감람나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가시는 분의 첫표본이라고들 생각을 하게 한 분이시다. 영모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라고 철칙같이 믿게 했던 분이시다.

1976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으나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

다. 영모님은 크리스마스날이면 전국 관장들을 초청해서 당신의 집에서 풍성하게 식사대접을 하시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76년 12월 25일도 예외 없이 전국 관장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는데 영모님이 직접 나오셔서 많이 먹으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축복을 강하게 한 음식이니까 과식을 해도 절대 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많이들 먹으라”고 하신다.

그러시더니 영모님은 혼잣말처럼 “나도 죽을 수가 있어!”라고 한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다. 영모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들은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그냥 지나쳐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영모님택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먼저 온 사람이 빨리 먹고 나가야 뒤에 온 사람들이 교대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영모님택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그래서 그와 같은 깜짝 놀랄 영모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지나친 사람들이 많았다. 그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관장들이 놀라서 영모님을 쳐다보니까 영모님은 즉시 해명하기를 “아니 내가 꼭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야!”라고 하시는 것이다.

사실 나중에 하신 영모님의 해명 말씀도 정신차려 생각을 해보니 역시 당신이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들려 주신 말씀이었다. 영모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은 관장들은 계속 그 말씀이 귀에 쟁쟁거리며 며칠 동안 일이 안 되더라고 말하였다. 이때 영모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영모님의 그 말씀은 곧 다 잊어버리고 영모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100% 머리 속에 다시 자리잡았다. 영생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던 영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들은 어찌 되는 건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야 한다고 간절히 소원했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영모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안찰을 해주시고는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신 영모님은 정말로 삼천년성인 구세주 계신 곳에 같이 가서서 영원히 사시려고 하신 마음이 계셨던 것일까?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세주의 삼천년성에 보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것일까?

영모님의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세주 출현시키시는 사명이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군에 포위되어 있는 중에 당신은 해산의 수고 끝에 낳은 아들 구세주를 첩첩이 에워싸고 있는 적군을 뚫고 구출하여 무적장수로 키워 세워놓으시고 당신은 그 적진 속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면서 “삼천년성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던 영모님은 지금 삼천년성은 가시지를 못하고 삼천년성을 바라만 보시다가 세상을 떠나려 하시고 계신다. 은 몸의 통증을 참기가 힘들어서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안 통하니 마약까지 쓰시면서 통증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90회

出將論(출장론)

運去運來天運來 운가운래천운래로
 一次二次三次大亂 일차이차삼차대란
 楚漢時節天下將帥 초한시절천하장수
 力拔山兮氣蓋世 역발산兮기개세로
 天下大將羽項類 천하대장우항류
 東西南北蜂起 동서남북봉기로서
 奪財人命殺害主張 탈재인명살해주장
 無非蒼生可憐 무죄창생가련구나

지운(地鬼의 運)이 가고 천운(天神의 運)이 오는 중에 1차 2차 3차로 크나큰 영적 싸움이 있느니라. 천신과 지귀(地鬼)의 삼 세 판의 영적 싸움이 있다. 초한 시절 천하 장수의 역발산기개세(力拔山兮氣蓋世=산을 뒤흔들 만하고 그 기세는 능히 세상을 덮을 만함)로 힘자랑을 하며 다투는 가운데 자칭 천하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재물을 빼앗고 인명(人命)을 살해하니 아무런 죄도 없는 창생들이 가련하구나.

湖西白華蘇伐地 호서백화소벌지에
 口吐火將白眉 구두화장백미로서
 殺害人命主奪財 살해인명주탈재로
 富貴家中屠戮時 부귀가중도륙시에
 蘇城百里人影永絕 소성백리인영영절

血流成川川血 혈류성천승혈로서
 忠淸分野八門卦 충청분야팔문괘가
 非吉地 비길지로 定 정했으니
 好運 호운이면 儻倖이요
 非運 비운이면 狼狽 낭패로다

호서지방의 백화(白華) 즉 외모가 하얗고 화려한 자들이 소벌지에 출현하여 눈썹은 희고 입으로는 불을 토하듯 궤변으로 사람을 죽여 인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탈취하느니라. 부귀한 집을 짐중적으로 도륙할 때에 소성 백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영영 끊어지고 승리의 피가 흘러 내를 이루느니라. 충청도 지방은 팔문괘(八門卦)에서 길지(吉地)가 아니라고 정했으니 운이 좋으면 요행이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로다.

白華八峰劫殺龍勢 백화팔봉검살룡세
 第一尤甚瑞泰 제일우심서태로다
 湖南智離靑靑將軍 호남지리청미장군
 呼風喚雨異跡 호풍환우이적으로
 僞由人民統率 명충인민통솔하야
 湖南一帶蜂起時 호남일대봉기시에
 嗚呼哀哉可憐 오호애재가련하다
 未成兒童何罪 미성아동하죄죄로
 男女十歲以上 남녀십세이상으로
 盡被刀鋸悲慘 진피도거비참구나

지구(地鬼)의 운이 가고 천신(天神)의 운이 오며 무적장수(마귀를 이기신 정도령)가 출현하느니라

南青西白假鄕 남청서백가정들이
 掀天一世揚揚 혼천일세양양으로
 八門 팔문금사 六花陣 육화진에
 生死門 생사문이 開開 개페로다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가짜들이 사람들을 겁탈하고 살해하는데 웅과 같은 가짜의 위세가 제일 심한 곳이 서태(瑞泰)이니라. 호남지리(湖南智離)의 청미 장군이 비바람을 부르는 이적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호남 일대에서 봉기할 때 오호 슬프구나! 가련하도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십 세 이상의 남녀가 모두 칼과 톱으로 형벌을 받으니 비참하다.

호남 호서에서 일어난 가짜 정도령(형미장군, 백미장군)들이 하늘을 뒤흔드는 의기양양한 기세로 일세를 풍미할 때 정도령이 휴(休), 생(生), 상(傷), 무(杜), 경(景), 사(死), 경(驚), 개(開)의 팔문(八門)에서 육화진(六花陣=天火)을 치니 생사문(生死門)이 열리고 닫히느니라. 가짜 정도령을 따르던 사문(死門)에 들어 죽게 되고 진짜 정도령을 따르던 생문(生門)에 들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육화진은 진법(陣法)의 하나로, 당나라의 이징(李靖)이 제갈량의 팔진법(八陣法)에 기초하여 만들었으며, 눈썹 모양이다.

古月遼東犯郭將軍 고월동봉범곽장군
 尋萬大兵統率 심만대병통솔하야
 不義者 불의자를 嚴伐 엄벌할제
 頭上保角愛護 두상보각애호하며
 絶長保短善者扶支 절장보단선자부지
 積惡之家無不殘滅적악자기무부잔멸
 身不離之頭流化 신불리지두류화로
 積善者 적선자는 생생이로다
 土室石枕正道人 토실석침정도인들
 多誦眞經不休 다승진경불휴하소

오랑캐(古月=胡)가 요동을 침범하여 곽 장군이 심만 대병을 통솔하여 불의자(不義者)를 엄벌할 때 머리에 쓴 면류관을 아끼고 보호하고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보충하며 즉 좋은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듯이 선자(善者)를 도와 고성과 어려움을 잘 견디도록 하며 악을 쌓은 집안은 남김없이 없애버리느니라. 토굴에서 들베개를 베고 자면서 바르게 도를 닦는 도인들이! 쉬지 말고 진경(眞經)을 많이 외우소.

魍魎魍魎鵝鵝병무경 리매밍랑압병무경
 邪不犯正眞經 사불범정진경이라
 北海出世走肖神將 북해출세주초신장
 風雲造化任意用之풍운조화임의용지
 義兵用事善惡判斷 의병용사선악판단

같은 사악하고 사된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정도(正道)의 경문(經文)이요 기도문 이니라. 해우 반도의 북쪽에서 출세한 조(趙=走肖)씨 신장(神將)이 풍운조화를 임의(任意)로 행하면서 영적인 의병을 일으켜 선악을 판단하느니라. 높은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물밀듯이 남쪽으로 쳐 내려와서 깃발을 적에 애착롭구나. 인생들이여! 악한 자는 만나는 대로 죽임을 당하니 바위굴에 숨은들 목숨을 보전하겠는가?*

도깨비, 산도깨비, 집오리, 벌레, 영무새, 꾀꼬리 등 온갖 도깨비 요괴와 잡새들과

고서연구가 박명하 선생님의 유튜브 강연 안내



동영상 재생목록 '고서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물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박명하/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한민족의 제천사상(祭天思想)과 미륵불(彌勒佛) 출현

【첨성대(瞻星臺)의 비밀】

흔히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이요 백의민족이라는 자부심이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사상의 저변에는 단군(檀君)이라고 하는 우리민족의 국조(國祖)가 자리 잡고 있다.

근대(近來)에 기독교(基督教)를 믿는 일부 몰지각(沒知識)한 사람들에 의해 단군상(檀君像)이 여러 곳에서 목이 잘리고 파괴(破壞)되는 수난(受難)을 겪고 있으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 맞는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민족의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단군사상에 대해 배우고, 우리들의 부모님으로 전해 내려오는 단군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하였던 것이다.

또 우리민족의 오래 전 옛날의 역사인 고조선을 세운 분이 단군이셨고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한반도에 국가적인 개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실체의 주인공인 단군을 지금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면 그 이상의 알 거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국조인 단군께서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끝 부분인 이스라엘로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이란-카스피해를 건너 우랄 알타이 산맥의 알타이지방에서 3백년을 머물다 중국의 북부를 넘어서 몽고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다시 100여 년을 지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몽고민족과 유사한 외모와 또한 세계적으로 우랄 알타이계라고 인류학적인 분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후 또다시 동진(東進)하여 만주(滿洲)를 지나 한반도의 북부 즉 대동강유역에서 비로소 단군께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理念)을 근간으로 하는 고조선(古朝鮮)이 탄생되었다. 즉 평양 부근의 대동강 유역에서 고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을 역사책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근처인 대동강유역에서 발견되는 유물인 기와장에서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와에 새겨진 문양은 처음 발견당시 즉 일제 때에는 이 기와에 새겨진 문양이 단순하게 그림으로만 알았으나 구세주께서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이를 증거하시어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한 신상훈박사로부터 분명한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아 비로소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그 후 중국 대륙에도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했으나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기자조선 또는 위만조선으로 불리는 중국의 한족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여기서 붕괴된 주도세력들은 그 후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멸망을 하였으며, 일부는 진한(真韓) 변한으로 분리되어 부족국가의 상태로 있

다가 후에 다시 신라(新羅)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의 국가로 등장한다.

초기의 신라는 옛 국가였던 고조선의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부활시켰고 당시의 고구려와 백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훗날 한반도를 통일하여 우리가 훗날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강대한 국가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선덕여왕 신라 27대 여왕은 불교에 심취한 왕으로도 유명한 분이셨다.

특히 선덕여왕 당시에는 벌써 불교가 국교(國敎)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첨성대 역시 지난 선덕여왕조 이전부터 제천의식을 행하였던 기록에 비추어 불교사상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천의식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볼 수가 있다.



현재의 첨성대 모습(남쪽정문에서 본모습)

불교가 들어온 초기 신라에 속하는 왕들 중 신라 27대조 선덕여왕(善德女王) 당시에 건축되었다는 첨성대(瞻星臺)는 선덕여왕이 죽은 이듬해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첨성대는 높이 9.108m, 밑지름 4.93m, 윗지름 2.85m, 밑에서 4.16m 되는 곳에 정남쪽으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창문을 낸 병모양의 구조이다.

첨성대에 대한 기록은 일연이 기록한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선덕여왕 대에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첨성대가 불교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이상향으로 제시되는 수미산(須彌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첨성대는 처음부터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들이 행하였던 제천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축조된 신전(神廟)의 개념이었으며 고도의 예술적 걸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첨성대는 그 외형부터 불교의 수미산도(須彌山圖)를 참조하여 보는 것과 같이 모양이 같은 것이다.

즉 이러한 사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첨성대의 축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저변의 사상 역시 불교의 수미산도와 우리민족의 제천 의식과 동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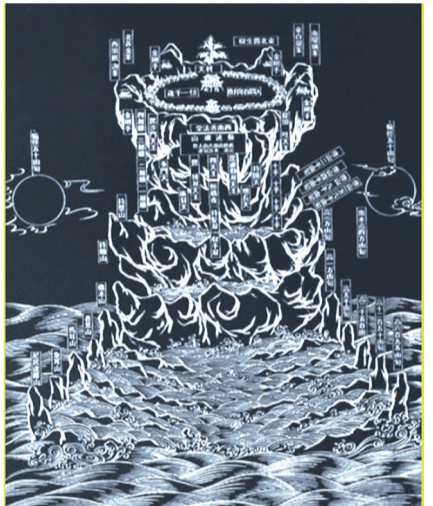
이것을 석가모니는 불경에 남겼다.

증일아함경44권(增壹阿含經卷第四十四) 십불선품(十不善品)第四十八(三)

爾時。彌勒菩薩於兜率天。觀察父母不老不少。便降神下應。이시, 미륵보살어도 출천, 관찰부모부노·부소, 변강신하응.

이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부모를 살펴보니 늙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으니 곧 신으로 하강하여 우측 옆구리로 태어났다.

첨성대의 제일 윗부분, 즉 정자석은 그 모양이 우물(井)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첨성대의 제일 상층인 28층에 우물을 상징하는 정자석을 놓은 것은 『하늘의 우물(天井)』이라는 뜻이며 하늘의 우물을 통하여 미래의 구세주인



불교에서 최고의 이상향의 상징인 수미산도

주인공께서 오실 것을 알고 첨성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앞장의 수미산의 모습을 그린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33천인 도



간다라 석판 '탄생' 장면에는 마야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는 싯다르타 태자(금빛 모습)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정결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손발을 쭉 뻗어 나왔다'는 불전 경전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이다. 여러 경전에서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 인간보다 먼저 신들이 그를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지금 싯다르타 태자를 받고 있는 인물은 다른 아닌 천신인 제석천이다. (유근자 박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2~3세기, 간다라,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솔천의 내원공이 보이고 이 내원공에 있는 용화수(龍華樹)가 보이는데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부처님께서 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닦으신 후 인간계(人間界)로 하강(下降)하여 강림(降臨)하시는데 이때는 수미산 정상에 한 가운데 있는 수미산정(須彌山井)을 통하여 강림하신다고 한다.

이런 이치로 첨성대는 전체의 모습이 수미산의 모양을 상징하는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천정(天

井), 즉 수미산정(須彌山井)을 상징하는 형태가 첨성대에서는 정자석이요 정자석이 곧 수미산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물 정(井)자 형태로 얹힌 것이다.

또한 사진 우측의 첨성대의 북쪽 면을 자세히 보면 기초석을 뺀 나머지부터 정자석까지 탑은 28층으로 돌로 쌓아 이루어 있는데 이것은 28수(筭) 즉 별을 상징하는데 한자에서 별이라는 것이 곧 북두칠성을 의미하므로 첨성대의 외관은 별의 상징인 28층으로 축조된 것이다.

또 첨성대의 출구는 남쪽을 향하여 오직 한곳만 있다. 이는 현재의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나 조선조의 왕궁이나 큰 사찰의 대웅전 등 절대 권력 내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은 북쪽을 향해 배치가 된다. 그리고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신하된 자들 중 귀양이나 외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임금의 어명을 받을 때는 북향재배(北向再拜), 즉 북쪽을 향해 절을 한 후 어명을 받듯이 우주의 절대자의 존재가 인간계로 하강하는데 북쪽에서 나오시므로 출구를 남쪽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은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할까?

사진 우측 아래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쪽 출구가 보이는데 출구가 되는 입구의 아래 변부터 출구의 위가 되는 곳까지 돌은 5층으로 쌓여 있다.

역학(易學)에서 『5(五)』라고 하는 숫자는 구세주(救世主) 부처님(佛)을 상징하며 이러한 존재들이 거하는 집이나 거처

또한 색상(色相)으로는 보라색(紫色)을 상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오프로 『5 + 28 = 33』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 숫자 『33(三十三)』 곧 숫자 『삼(三)』은 하늘(天)을 상징하는 것이요 숫자 『10(十)』은 "이루었다(成)" 라는 의미와 함께 구세주(하느님·부처님)를 상징하는 숫자이며 다시 또 숫자 『3(三)』이 있을 때는 역시 하늘(天)을 상징하지만 숫자 『10(十)』을 전후 하여 있을 때는 선천



첨성대의 북쪽면 모습(좌)



첨성대의 남쪽에 있는 출구모습(우측 우물 정(井) 모습의 정자석(正字石))

(先天)과 후천(後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3천이란 하늘이 33개가 불교의 의미도 있지만 역리에서 선천과 후천을 함께 이루어 무극(無極)에서 태극(太極)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다시 황극(皇極)으로 되돌아가서 본래의 모습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면 첨성대의 한자인 첨성대(瞻星臺)는 흔히 말하길 『불첨(佛) 별(星) 돈 대(臺)』라고 하는 한자 풀이로 해석을 하여 “별을 바라보는 제단”이다 라고 풀이를 하여 첨성대가 천문대라고 말할 하지만 사실은 『우러러 불첨(佛) 별(星)』자로 이해를 하여 『별을 우러러보는 제단』이라는 뜻이다.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의 3수와 7수 북두칠성이 뚜렷하게 보인다.

별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당시의 신라 때에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을 향해 입추(立秋) 다음의 첫 진일(辰日)에 농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을 향해 신라의 국왕이 제사장(祭司長)이 되어 친히 제사를 지냈는데 북두칠성은 영생(永生)을 기원하는 사상의 상징이다. 또 여기서 입추(立秋)의 다음 첫 진일(辰日)은 간지(干支)에서 보면 『진(辰)』은 『북두성진(北斗星辰)을 말한다』고 하였고 북(北)은 곧 천추(天樞)를 의미한다. 여기서 천추란 『추성(樞星)을 의미하는데 추성이 곧 북두칠성을 뜻하며 하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根本)』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별이요 으뜸이고 모든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북두칠성을 향하여 입추의 별(辰)날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첨성(瞻星)이라는 말도 『별을 관측한다』는 뜻이 아니라 『별을 우러러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첨(瞻)은 『우러러본다』는 뜻이다. 성(星)은 단순한 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역리에서 별수인 28수(筭)를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세상의 별이 아닌 북두칠성을 상징하는데 북두칠성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훗날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제거하고 인류를 사상으로 구원할 주인공인 구세주를 기다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즉 구세주는 가슴에 북두칠성의 별점을 가지고 1931년 신미생(辛未生)의 양띠와 양의 달이

되는 음력 6월달 그리고 별을 상징하는 28일 새벽 4시에 김포의 감정리(坎井里)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옛날의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건축을 하였으며, 감정(坎井)이란 지명은 곧 易學에서 감(坎)은 하늘을 상징하므로 감정(坎井)은 곧 『하늘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오시는 때를 잘 깨달아 구세주를 만나서 영생의 큰 축복을 받으라는 의미로써 남겨놓은 우리민족의 지혜의 유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구세주의 상징인 별을 우러러보았지 꿰뚫어 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이고 민족의 상상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고서 강화도의 마니산의 첨성대, 평양의 첨성단과 같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지어놓고 구세주의 강림을 학수고대하였던 것이다. 또 성경에서 구세주를 『빛나는 새벽 별』이라고 하였고 불경도 미래에 중생을 구원하는 미륵불은 『하늘의 밝은 별(明星)』이라고 하였으며 우리민족의 예언서인 격암유록(格庵遺錄)에도 『길성조림(吉星照臨)』이라 명시하였던 것이다.*

明鐘 E-mail : wuryhana@gmail.com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